

에듀 단신

종로학원

5일 정시지원전략 설명회

대학입시전문 교육기관 종로학원은 4일 수능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이튿날인 5일 오후 2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종로학원 2020정시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이달 11일까지 인천, 분당, 일산, 평촌, 수원, 세종,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서 잇따라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수능 실재점 결과 ▲올해 학생 수 5만명 감소에 따른 정시 합격점수 하락폭 정밀분석 ▲대학별 지원가능점수 확정 발표 등을 공개한다. 참가신청은 종로학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온라인 사전예약 후 참석자에 한해 현장 온라인 정시예측프로그램 등 입시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한다.

웅진책방 '영유아 발달 전집'

'웅진 베이비 오감튼튼'

웅진씽크빅은 어린이 도서 전문 온라인몰 웅진책방이 영유아 통합 발달 전집 '웅진 베이비 오감튼튼(사진)'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웅진 베이비 오감튼튼은 신생아부터 36개월까지 유아 월령별 성장 과정을 총 5단계로 나눠, 각 단계마다 아이의 오감과 감각·신체·언어·인지·사회정서 5대 성장 발달 영역을 고루 발달 시키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교원구문

영유아 두뇌 발달 '브레인 쪽쪽'

교원그룹의 개인·능력별 학습지 교원구문이 만 4~6세 유아들의 종합적인 두뇌 발달을 돕는 영유아 대상 교육 프로그램 '브레인 쪽쪽'을 새롭게 선보인다.

브레인 쪽쪽은 교원구문의 교육 노하우가 집약된 영유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창의사고력 ▲Activity Skill ▲운필 조작력 3종의 스펙트럼식 워크북과 월 1회 구문선생님이 방문수업으로 구성된다.

특히 가정에서 홈스쿨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번 학습관리판을 제공한다.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모든 과제를 해결하면, 상장을 부여해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천재교육

에듀테크센터 입주기업 모집

천재교육은 오는 20일까지 천재교육의 창업보육센터 '에듀테크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에듀테크센터는 천재교육이 2015년 교육업계 최초로 만든 스타트업 창업보육센터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육성 및 발굴을 통한 에듀테크 서비스 발전을 목표로 설립됐다.

입주 대상자는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창업 3년 이내의 AI, AR, VR, 블록체인을 비롯한 IoT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며, 입주기업에게는 사무 공간 무상 지원, 경영 및 마케팅 멘토링, 투자유치 및 사업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용수 기자

고교 캠퍼스 공유... 타학교서 수업 듣는다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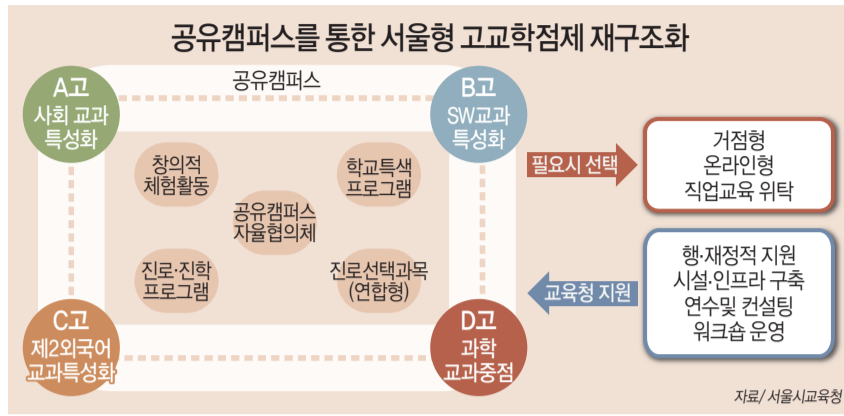
내년부터 3~4곳서 시범운영
2025년 고교학점제 안착 유도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내년 서울 고교 3~4곳을 공유캠퍼스로 시범 운영하고 2024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1곳 이상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모든 일반고 학생의 실질적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단위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간 연대와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동반 성장으로 학교의 교육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유캠퍼스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유캠퍼스는 권역 내 이웃 학교를 각기 다른 교과와 교과특성화학교로 지정·운영해,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본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 중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 개설된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수업을 수강토록 함으로써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도 단위학교 내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희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있



었으나 편성 및 운영상 단위학교의 인적·물적 한계가 있었다. 또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은 주로 방과후나 주말을 이용해 운영되는 등 전체 일반고에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달리 공유캠퍼스는 단위학교별 학생 희망 과목을 모두 개설해야 하는 피로도를 줄이고, 정규수업시간에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유캠퍼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유캠퍼스를 운영하면 기존에 일반학교에 지원되던 일반고 전성시대 운영비와 소인수과목 감사비 외에 교과특성화학교 운영비,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운영비, 공유캠퍼스 운영비 등을 추가해 학교당 평균 1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전임요청 대상 인원을

추가하거나 교과특성화 관련 전공교사 배치 시 학교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각종 시설 개선 사업에 공유캠퍼스 운영교를 우선 추천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유캠퍼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학교가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 강화를 통해 교육과정의 수평적 다양화와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Excellence for all)을 보편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웃 학교 간 자율협업체 단위로 공모해 2020년 3~4개 캠퍼스를 시범 운영하고 2024년까지 25개 자치구별 1곳 이상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모와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까지 운영 권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내년 3월에는 실제 운영 상황을 지

속 모니터링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공유캠퍼스 도입은 2025학년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것이지만, 최근 교육부의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 확대 방향이 결집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앞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수시모집 이월인원까지 감안하면 20% 수준으로 떨어졌던 수능전형 비율이 절반수준으로 확대되 사실상 대입 주요 전형으로 자리잡게 된다.

수능이 대입 주력 전형이 되면, 수능에 특화된 수능 사교육 확대가 예상된다. 학교 수업 또한 수능 시험에 유리한 과목으로 재편되고 학생들도 고교학점제에 따라 듣고 싶은 교과목을 수강하기 보다는 자신의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 관계자는 "수능 전형이 대세 전형으로 확대될 경우 학생들이 수강을 원하는 과목을 듣기보다 대입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과목 수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교 교육과 대입의 방향이 서로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교육부, 수능 성적유출 인정

평가원 홈페이지 보안 도마

수험생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취약점을 이용해 미리 확인한 사태가 공식 확인됐다. 정시 확대를 앞둔 가운데 수능 성적이 사전 유출되면서 관리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일부 수험생이 성적을 미리 확인한 상황을 인지한 후 2일 오전 1시 33분 관련 서비스를 차단했으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예정대로 4일 오전 9시부터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태는 1일 한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능 성적표를 미리 발급받았다"고 인증한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웹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기능을 이용해 클리

몇 번 만에 가능하다고 설명한 후 이를 따라한 수험생들이 이어졌다. 성적을 확인한 수험생들이 가채점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실제 성적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게시하자 순식간에 확산됐다.

이달 1일 저녁 9시 56분부터 2일 오전 1시 32분 사이 졸업생 312명이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본인 인증 후 소스코드에 접속해 2020학년도로 변경 후 본인의 성적을 사전 조회하고 출력했다. 기존 2019학년도를 2020학년도로 변경한 후 성적을 조회할 수 있어 재학생이 아니라 졸업생만 성적 조회가 가능했다.

이는 해당 서비스의 소스코드 취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해당년도의 파라미터값을 '2020'으로만 간단히 변경하면 조회가 가능한 만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



인천대는 연수구 4차 산업혁명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식 테이프커팅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대

인천대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열어

인천대는 최근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개소식 및 창업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입주기업 협약서 전달,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됐으며 창업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장이 됐다.

먼저, 행사는 '청년 스타트업의 성공전략'이란 주제로 창업포럼을 열고 4차산업혁명과 청년창업, 청년의 꿈을 이루는 스타트업, 사업아이템을 찾기 위한 6번의 도전, 창업실패에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 등 선배 창업인들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열렸다.

/손현경 기자

블라인드 채용에도 대기업 신입스펙 '쑥'

평균 학점 3.7점, 토익 836점

블라인드, AI(인공지능) 채용 등 스펙초월 채용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지만, 올해 기업 신입사원들의 합격스펙은 전년보다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인턴십 경험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자격증 보유자, 해외체류 경험자 증가도 눈에 띈다.

2일 잡코리아가 1000대 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1256명의 합격스펙을 분석한 결과, 졸업학점은 평균 3.7

(4.5만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졸업학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취업스펙이 전년보다 소폭 높아졌다.

먼저 신입사원 중 자격증 보유자는 73.7%에 달했다. 10명 중 7명이 직무 자격증이나 컴퓨터활용능력 등의 자격을 보유했다. 토익 점수는 평균 836점으로 전년(평균 702점)보다 크게 높아졌다. 영어 말하기 점수 보유자(61.8%←63.2%)는 소폭 줄었지만, 제2외국어 점수 보유자(16.6%←12.1%)는 소폭 증가했다.

/한용수 기자

교총 등 17 단체 "만 18세 선거법 반대"

선거법 개정 중단 기자회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고3까지 정치관 참여는 만 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만 18세 고3에게 선거권을 주고 선거운동과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법안인데도 아무 대책도 없이 졸속 처리한다면 교실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학생들을 오염된 선거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용수 기자